

The 3rd 창작단막극제

연극 연출가 6인의 실험 무대
그 세번째






나는 연출이다



2013년 9월 13일 - 9월 15일

13일(19:30)/14-15일(16:00)
청춘나비소극장 지하철 2, 3호선
수영역12번 출구

나는 연출이다

관극평가단예약:  playnavi.com /  BS부산 / 부산은행권재민 / 

문의: www.playnavi.com/070-8241-2560, 010-7178-7175

주최 청춘나비 / 주관 부산연극제작소 동네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본 사업(공연/행사/도세은 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 됩니다.

기획의도

청춘나비아트홀의 '제3회 창작단막극제 연극 연출가 6인의 실험무대 그 세 번째 - 나는 연출이다' 는..

부산 공연예술에 세대로서의 정적과 대중의 외연, 그리고 점점 줄어제가는 공연계의 인력만을 보면서 답을 찾는 것이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작과 '창작단막극제' 를 구상하면서 기획자로서 평범한 단막극제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상업성을 버리고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고, 그들에게 부산 연극인과 그들의 공연철학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를 방송에서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작과 기획은 그 진행방식에 신선함을 느끼고, 처음으로(?) 연극에 일반관객이 티켓을 구매하여 공연을 보는 방식이 아닌, '관극 평가단' 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자로서 프로그램 컨셉 방향에 '관극 평가단' 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대중(일반인)에게 연출가의 철학과 자질이 담긴 작품을 직접적으로 소개할 수 있으며, 연출가에게 대중을 통해 본인의 작품에 대한 객관성을 인지하고 대중과 직접적 소통을 통해 이후 창작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연출과의 첫 모임을 가졌을 때 연출가들께서 걱정은 우려와 거부감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프로그램을 거듭해 나가면서 '나는 연출이다' 무대는 연출가에게 창작을 위한 실험무대이자, 개인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올해 '3회' 제를 맞으며 연출님들에게 놀이터 같은 무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가단이 조금 무담이 되긴 하지만요, ^^)

제작의도

극단을 운영하면서 두세 명의 연출가들과 작업을 해오고 있었다. 나름의 스타일과 창의성을 가진 꽤 괜찮은 연출가들이었다. 비나 할 것 없이 독불장군들이었다. 연출가들은 제마디의 연극적 이상이 있었고, 그것은 황홀했었고 때때로 무모했다. 제작자로서 나는 그들이 자신의 이상을 자유롭게 펼치기쯤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예술적 성취가 극단 운영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무나 쉽게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현실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했던, 연극 초년생 시절에는 무던히도 실험했고, 도전했고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웠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쉽고 즐거운 연극을 허락했고, 아르바이트에 지친 배우에게 지독한 수련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였고, 연습실 열기가 밀려감에 우리는 장사를 해야만 했다. 나는 제작자로서 연출가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 현실을 봐 달라 했고, 그 요구는 연출가들을 자유롭게 못하게 했다. 내가 뭘방관이 된 것 같아서 언제나 마음이 쓰리다. 이 단막극제는 연출가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다. 모든 현실적 요구들로부터 자유로운 연출가, 그들이 토해내는 진짜 연극을 만나보고 싶다.

스텝진

프로그래머 강원재 / 예술감독 박용현 / 기획 정현우 / 무대감독 최용혁
조명감독 이현무 / 기획보조 성현일 / 조명op 임희선 / 음향op 이동욱
무대 박석재, 한수용 / 진행 박지현, 유하나 / 사진 박정환 / 영상 페이지캠

작품명 '그녀를 소개합니다'

만든 사람들

작 연출: 오치훈 출연배우: 양재웅 스텝: 이영선 (음악, 작곡)

연출의도

일단 작년부터 여부가 차별화된단. (나이가 온 건지)
이 공연은 작년에 단막공연으로 올렸던 [Self Portrait]의 연작으로 만들기 위해 주제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는 무시무시한 상실감, '고통'이라는 테마로 인간의 삶을 엿보려 한다. 무엇이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하는게 나의 연극적 상상에는 늘 이 질문이 있다.

참여등기

연극 작업을 즐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연극 작업과 삶이 그리 즐거운 시간으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 나만을 작업에서 나를 포함하는 당당함을 연습했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면서 한계를 만나고, 도전하는 즐거움을 가까이 받아들였다. 나는 또 다시 실험실 같은 무대에서 가시를 채우고 새로운 방식에 도전해 본다.

시놉시스

조금 색다르고 싶은 1인 뮤지컬.
한 명의 배우가 하나의 이야기를 공명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무대. 그 중에서 판소리의 '민'이라는 개념을 현대연극에서 실험 볼 것인지를 고민하는 무대로 얽어본다. 판소리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리듬과 선율과 이야기 대신, 현대적 음악과 현대적 어투를 사용한다.



나는 연출이다

작품명 '작업중 - '고도를 기다리며' 연습 중 생긴 일'

만든 사람들

작 연출: 이성규 출연: 임지연 배진만 (연출) 박선희 (조연출) 박성희 (배우)

연출의도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출할 때 연극적임이 아닌 심미 창조영역과 유사하다는 굉장한 생각을 한적이 있다. 연극적임중은 고도를 기다리며의 등장인물을 만들어가는 연습과정을 통해 나의 자아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적 인기를 통해 보려고 한다.

참여등기

맛있는 푸짐 요리가 넘쳐나는 시대엔 때로 쫄음 장맛이 서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생각으로 덤식 참여자만을 받아들였다. 나같은 높은예를 구태어 참여시키려는 옴모?도 고마웠지만 부산연극회 창조적 다양성을 위해 예쁜 청춘나비스극장의 열정에 조그만 힘이라도 보탬 수 있는게 뭐 인을까? 하는 실정으로 참여한다. 고립무원으로 지내다 이연석으로부터 부산연극의 속삭음으로 참여가본다.

시놉시스

밀실의 방이란, 고도를 기다리며의 중요배역인 희키의 이미지를 만들기를 하고있다. 연출의 복합적인 의도는 조연출과 배우를 온전히 하고 연출은 비상대행회의 때문에 시간이 쪼들고, 결국 배우의 불안으로 연출의 복을 조르는데..



나는 연출이다

작품명 '거울뭉'

만든 사람들

원출: 박연정 출연배우: 여민선, 이해민, 박연정



박연정

참여등기

흔하디 흔하고 하연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춤을 추며 포괄적으로 바라보면 이해하기 편해질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떠한 동작이래도 춤이 될 수 있고 육체의 움직임은 무한한 상징성이 있어 그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도 우린 몸짓 언어(body language)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는 것이고 그 소통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작품에서 저는 동작의 에너지로 조심스럽지만 당차게 관객들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안무의도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나에게 무엇을 안겨주었나?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은 날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표정... 그들이 기억하는 내가 과연 나일까?

사람들은 누구나 관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을 남들이

보게주게 하고자하기 시작한다. 때론 상황에 맞게 거짓 표정과 행동과 말을 하게 된다.

잠깐 잊어버려지는 나는 어느 순간 진짜 나는 누구인가의 물음에 대답하기 곤란해진다.

잊혀지지 않았던 나 자신을 잊어버리지만 순수한 그 색깔은 이미 갖기 힘들다. 상야상을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선 나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처음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보고 신기하게

포기장에 비친 나 자신을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날 비추는 거울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줄지하는 두려움의 거울이 되어서는 안된다. '거울뭉'은 '거울' + '뭉'의 합성어로 여기서 '뭉'은

두가지의 의미로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시선이 가늘고 넓고 깊고 얇고 차가운

금속조각처럼 공격적으로 다가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의미의 '뭉'은 장난치게 굴어 괴어 있는 곳으로 무량하게 많은 곳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 자기 정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나는 거울이다

작품명 '생의 가늠'

만든 사람들

작 연출: 박지영 출연배우: 김아름, 이우경



박지영

참여등기

지금 제 인생은 너무 사소해서 어렵 하든지 저절 하든지, 뭔가를 하든지, 뭔가를 하지 않든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첩의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 하나의 차이가 생겼었고,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큰 차이가, 어떤 것을 보는 것을 그만 두고 어떤 것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던 그날 무언기가 일어나고는 합니다. 이 밤님이 모르는 것지만 소중한 차이가

생각들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어군다나 많은 말들을 줄여 직계 말할 수 있는 지라인지라 편하고 감사합니다.

시놉시스

이번 작품 <생의 가늠>은 김동진 작가의 단편소설 <무너짐>의 어머니 회회와 딸 남이의 이야기와

저의 일기와의 만남입니다. 매일 새벽 말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와 그 길을 행중거리 한는 딸의

기나긴 생애 역정은 오늘날 계속 됩니다. 여객항 고개를 넘어갑니다.

사랑하면 글과 글 사이의 행간을 읽고

사랑하면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을 듣고

사랑하면 몸짓과 몸짓 사이의 마음을 봅니다.

나는 거울이다

작품명 '앵무새'

만든 사람들

작가: 김동진 연출: 김동진 출연배우: 김정은 (나), 김수정 (앵무새), 이수정 (옥소리 출연)

스텝: 이수정 (분장), 손상훈 (음악), 김관승, 김정환 (무대)



김동진

연출의도

개성 없는 세상, 규정과 규범 속에서 그렇듯하게 자신을 포장하며 사는 사회.

눈치 보다 순간 꿈을 잃어버린 네. 스스로를 행복과 시키며 세상과 화합하는 인간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린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식 멀지 않습니다. 솔직해 줘서.

그럼 자유로워 질 겁니다. 끝으로 김준수의 꽃 아래는 사랑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참여등기

올해로 만90년 특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간동안 배우에 시간어이고 배움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국으로 갈날 직하지 않았고 떠나지 않는 혼자 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90년은 잘난 척하고 하루 내뿜어합니다. 초유히 묵묵히 연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연극인을 알게 무엇보다 대중을 알게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극이다! 역시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담담히 평가를 받아 볼 것입니다.

시놉시스

대중을 나는 상대방이 내 말과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너는 누구인가? 네 너 누구 인 거?

나는 거울이다

작품명 '바다, 그곳에 가면'

만든 사람들

작가: 홍신우 연출: 박진호 스텝: 차승현 (제작/기술) 이시라 (음향) 한희경 (미술)

출연배우: 임지림 (정숙) 박준수 (수철) 오세을 (아버지, 남지친구)



홍신우

연출의도

부모님 얘기를 하고 싶었다. 연극을 수년 동안 해오면서, 또는 연극을 하며 지내는 친구들을 보며,

기도 부모님이 재능이 탁월해주셨으면 하는 인디마음을 가진 적이 많았던 거 같다. 그런데 들어가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물질적 자원은 해주지 않았지만, 내가 화일을 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그 당시에는 못 느꼈던 것이지만..... 참 행복하게

연극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살든 죽든 간에 부모님은 기다린다. 믿어 준다.

참여등기

미리코르코트를 입고서 부신에서 본격적으로 연극작업을 시작하자 이제 23년이 되어간다.

고종왕 밑만 보고 달려와서인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공유가 가능한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다. 바로 내곁에 있는 예술인들과 교류하고 싶었다. 그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듣고 싶었고 그들을 만나고 싶었다. 때마침 그럴 기회가 생겼다. 아직은 초년생 햇병아리 연출이지만

그들과 당당하게 무대 위에서 소통하고 즐기고 싶다.

시놉시스

바닷가 섬마을에서 태어난 정숙과 수철은 매일 같이 부뚜막에서 비디를 몇 십여 어를 저낸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정숙과 수철은 고등학생이 되고, 그곳에 사람들도 점점 떠나가기 시작한다.

또 다시 세월이 흘러 정숙은 지겨운 비디를 찾아오지만, 정숙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런 세상을 떠나버리는데..

나는 거울이다

나도 평론가다! 일반관객들의 리뷰를 받습니다

연극 공연의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객'!!
연극 공연의 완성은 관객이 존재 할 때 비로소 완성 된다.
<제3회 창작 단막극제 연극 연출가 6인의 실험무대 그 세번째. - 나는 연출이다>의
관객은 수동적인 입장의 기존 판극 방식과 차별화되어 '관객 평가단'으로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 받아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된다.
관객 평가단의 적극적인 판극을 유도하고, 연출가들의 실험적 상상력의
소산물인 작품과 관객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우수 평론 및 리뷰를 공모 한다.
공연을 보시고 청춘나비 홈페이지(<http://www.playnavi.com>) 공연후기
게시판에 리뷰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나는 연출이다' 대본집과 공연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창작 단막극제 나는 연출이다'의 협력체인
연극비평지 '봄' 에서도 감상후기를 받습니다.
cione4915@hanmail.net으로 보내주신 후기들 중 선정된 원고는
연극비평지 봄에 실리게 됩니다.
그 외 모든 원고들은 연극비평지
봄 블로그 (<http://blog.naver.com/jwry2003>)에 올려집니다.

나는 연출이다

극단 소개

본 극단은 1995년 10월 "페아트리 경성" 이라는 이름으로 창단되었습니다.
(연극전문 졸업생들로 구성된 부산 최초의 극단). 이후 더욱 활발한 창작활동을 위하여 극단명칭을
현재의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으로 변경(1998년)하고 전공/비전공을 불문하고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연극협회 및 부산연극협회 회원극단으로서, 전국적으로도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극단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넵은 창단이래로 우리의 전통연희양식과 현대의 만남을 토대로 창작 공연작업을 끈임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리데기(동경 타이니엘리스 초청) 할매 어데가노(고마나루 향토연극제 연출상, 최우수 연기상),
'신부 나비 꿈꾸다(부산연극제 대상)등 전통연희와 배우들의 신체극, 그리고 현대의 드라마가 만난
공연을 제작하면서 지속적인 창작의 실험성과 전통연희양식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레퍼토리 공연을
만들어왔습니다. 본 극단의 창작체계는 여러 연출이 각각의 성향에 맞게 작품을 창작 또는 선정하여
제작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배우의 연기를 위한 Workshop과 각 공연
장르에 어울리는 연기 훈련이 비중 있게 진행되고 있는것 역시 극단 창작 시스템의 강점입니다.

주요현역

- 1995년 "페아트리 경성" 창설 1998년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명칭변경
- 한국연극협회 및 부산연극협회 회원극단
- 다양한 창작공연 및 프로그램, 교육연극사업(청소년, 직장인 등), 공연축제진행(광안리 어방축제)
- 2001년 ~ 현재까지 마약퇴치연극 공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초중고 순회공연

수상경력

- 2000년 부산연극제 참가작 : 복어알 (희곡상, 남자신인연기상 수상)
- 2006년 밀양연극제 젊은 연출가진: 바리데기 (양상블 상)
- 2007년 부산연극제 참가작: 신부 나비를 꿈꾸다 (부산연극제 대상)
- 2008년 Alice Festival : 바리데기 (특별상 수상)
- 2010년 고마나루 향토연극제 : 할매 어데가노 (연출상, 최우수연기상 수상)
- 2013년 부산연극제 : 운 악 (대상, 최우수연기상, 우수연기상, 인기상)
- 2013년 전국연극제 : 운 악 (대상, 우수연기상, 무대예술상, 연출상)

해외 교류공연

- 2005년 '사람 첫 이미지-꿈' (오치운 연출) -동경 타이니엘리스 극장 초청
- 2008년 '두 자매 이야기' (오치운, 카와미츠히류 공동연출) -경성대학 예노소극장
- 2008년 '바리데기' (심문섭 연출) - 동경 타이니엘리스 극장 초청
- 2012년 '더 터널' (박용현, 아마다 히로유키 공동연출) - 동경 자코엔지 극장
- 2013년 '아이노 노우' (김세일 연출) - 청춘나비 소극장

